

2020년 11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연준에 대한 기대와 차익 욕구 확산의 충돌

아마존으로 인한 의약품 체인 산업의 격동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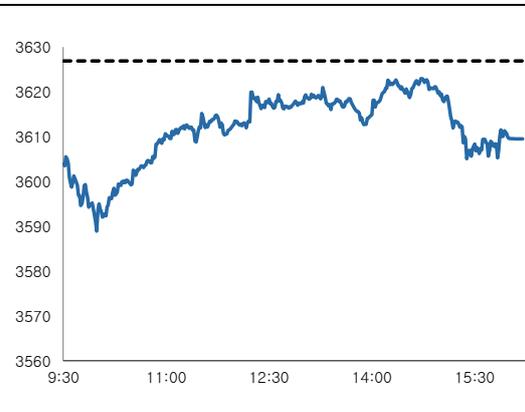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경제지표 ②연준위원들의 발언 ③개별 기업 이슈

미 증시는 소비둔화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며 장 초반 하락. 여기에 아마존으로 인해 약국 관련 산업 업종이 대부분 급락한 점도 부담.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한 이후 낙폭 축소. 그러나 장 마감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로 추정되는 수급 영향으로 결국 하락 마감하는 등 변화를 보임(다우 -0.56%, 나스닥 -0.21%, S&P500 -0.48%, 러셀 2000 +0.37%)

미 증시는 ①경제지표 ②연준위원들의 발언 ③개별 기업 이슈 등으로 변화.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는 둔화되고 생산은 개선됨. 10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쳐 지난달 1.6% 증가에서 둔화됨. 특히 코로나가 이어지며 음식 서비스 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한 반면, 비 점포 매출은 전월 대비 3.1% 증가하는 등 언택트 상황이 강화. 10월 산업생산은 지난달(mom -0.4%) 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제조업생산도 전월 대비 1.0% 증가해 예상을 상회. 공장 가동률은 72.8%로 지난달 (72.0%) 보다 크게 개선. 내구재 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고, 하이테크도 1.7%. 비 내구재도 1.2% 증가하는 등 생산 활동이 활발한 모습. 한편, 11월 코로나 확산을 감안 향후 소비 둔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장 초반 미 증시 매물 출회 요인

이런 가운데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장 초반 “코로나 확산이 생산과 소비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며 우려를 높이고 있어 연준은 추가 채권 매입의 필요성을 저울질 할 것” 이라고 주장해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높임.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장중에 “코로나 급증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 모두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며 금리인상은 인내심이 필요” 하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한편, 아마존(+0.15%)이 온라인 약국을 런칭 했다고 발표하며 본격적인 판매 시작. 이 결과 월 그린 부츠(-9.63%)등 약국 체인점 업종 및 약품 판매 파이프라인을 가진 카디날 헬스(-6.48%) 등의 급락 야기. 전반적으로 아마존으로 인해 앞으로 수년 동안 처방 의약품 산업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 다만, 독과점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539.15	-0.15	홍콩항성	26,415.09	+0.13
KOSDAQ	839.47	-0.93	영국	6,365.33	-0.87
DOW	29,783.35	-0.56	독일	13,133.47	-0.04
NASDAQ	11,899.34	-0.21	프랑스	5,483.00	+0.21
S&P 500	3,609.53	-0.48	스페인	7,934.30	-0.65
상하이종합	3,339.90	-0.21	그리스	690.99	-0.05
일본	26,014.62	+0.42	이탈리아	21,435.11	+0.5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아마존 Vs. 약국 체인점

테슬라(+8.21%)는 S&P500 지수 편입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만, 일부 선반영이 되었다는 평가 속 매출 출회되며 전일 시간 외 주가 변화에 비해서는 폭이 제한 되었다. 월마트(-2.01%)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온라인 판매가 지난 분기 97% 증가 보다 감소한 79% 증가를 보였다는 점 등을 감안 매출 출회되며 하락했다. 홈디포(-2.54%)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동일점포 매출이 지난 분기 23.4%보다 소폭 개선된 24.1%에 그쳤고 비용 증가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찰스스왑(+4.29%)은 씨티그룹이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데 힘입어 급등했다. JP 모건(-1.01%)은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아마존(+0.15%)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약품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 그린 부츠(-9.63%), CVS헬스(-8.63%)등 약국 체인점과 약품 판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카디날 헬스(-6.48%), 맥케슨(-5.46%)과 굿알엑스(-22.50%) 등이 급락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마존의 행보에 대해 독과점에 대한 언급을 하며 향후 독점금지법 강화 우려를 자극했다는 점이 부각되자 알파벳(-0.70%), 페이스북(-1.42%), MS(-1.28%) 등 대형 기술주는 하락했다. 모더나(-4.90%)는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63%	대형 가치주 ETF(IVE)	-0.52%
에너지섹터 ETF(OIH)	+1.35%	중형 가치주 ETF(IWS)	-0.21%
소매업체 ETF(XRT)	+0.41%	소형 가치주 ETF(IWN)	+0.25%
금융섹터 ETF(XLF)	-0.14%	대형 성장주 ETF(VUG)	-0.21%
기술섹터 ETF(XLK)	-0.56%	중형 성장주 ETF(IWP)	+0.1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0%	소형 성장주 ETF(IWO)	+0.63%
인터넷업체 ETF(FDN)	+0.40%	배당주 ETF(DVY)	-0.19%
리츠업체 ETF(XLRE)	+0.0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1%
주택건설업체 ETF(XHB)	+0.2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2%
바이오섹터 ETF(IBB)	-0.23%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IV)	-0.65%	하이일드 ETF(JNK)	+0.09%
곡물 ETF(DBA)	+0.85%	물가연동채 ETF(TIP)	+0.17%
반도체 ETF(SMH)	-1.15%	Long/short ETF(BTAL)	-0.9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2.44	+0.50%	+6.43%	+20.28%
소재	440.16	-0.39%	-0.35%	+6.67%
산업재	739.26	-0.28%	+2.27%	+7.97%
경기소비재	1,253.70	-0.30%	+2.36%	+0.60%
필수소비재	694.36	-0.62%	+2.25%	+3.44%
헬스케어	1,289.80	-1.00%	-0.47%	+4.14%
금융	457.62	-0.20%	+1.44%	+11.07%
IT	2,138.21	-0.55%	+2.75%	+1.89%
커뮤니케이션	213.59	-0.42%	+1.58%	+7.77%
유틸리티	331.28	-2.01%	-1.53%	+2.15%
부동산	233.65	+0.12%	+2.66%	+5.3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0%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5.8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정책 기대를 높이는 발언에 힘입어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아마존과 테슬라 등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의 등락이 뚜렷한 종목 장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도 방향성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 가능성을 높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부양책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렇지만 전일에 이어 오늘도 연준위원들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한 점은 긍정적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국채 매입 규모를 800 억 달러에서 1,200 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은 이번에도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 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소매판매 부진 Vs. 산업생산 개선

10 월 미국 소매판매는 지난달(mom +1.6%)은 물론 예상(mom +0.4%)를 하회한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도 예상을 하회한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가 이어지며 음식 서비스 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으며 비 점포 매출은 전월 대비 3.1% 증가해 지난달(mom -1.7%) 보다 개선 되는 등 언택트 상황이 강화 되었다.

10 월 산업생산은 지난달(mom -0.4%)은 물론 예상(mom +1.0%)을 상회한 전월 대비 1.1% 증가했으며 제조업생산도 전월 대비 1.0% 증가해 예상을 상회했다. 공장 가동률은 72.8%로 지난달(72.0%)은 물론 예상(72.2%)를 크게 상회했다.

10 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해 예상(mom +0.2%)를 하회했으며 수출 물가도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쳐 예상(mom +0.3%)를 하회했다.

11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85) 보다 개선된 90 으로 발표돼 주택시장 지표는 여전히 견고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제한적인 움직임

국제유가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 부진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OPEC+ 국가들의 산유량 감산을 타이트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며 반등에 성공했다. 여기에 연준위원들의 추가 부양책 시사 발언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도 이어져 그 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정치 마찰이 지속되자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한 바이든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소매판매 둔화 또한 약세 요인이다. 파운드화는 다음 주까지 EU와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타결 기대가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되었다. 유로화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3% 강세를 보였고 신흥국 환율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소매판매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 물론 백신 낙관론이 여전히 있지만, 실제 접종이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관련 낙관론을 희석시킨 점도 하락 요인이다. 여기에 전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에 이어 오늘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이 추가 부양책을 시사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시장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양상을 보인 가운데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다.

금은 달러 약세, 코로나 급증과 백신, 연준의 부양 기대 등이 충돌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과 미국 산업생산 개선에 기대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54%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1.43	+0.22	+0.17	Dollar Index	92.430	-0.23	-0.34
브렌트유	43.75	-0.16	+0.32	EUR/USD	1.1866	+0.12	+0.43
금	1,885.10	-0.14	+0.46	USD/JPY	104.19	-0.37	-1.05
은	24.651	-0.61	+0.77	GBP/USD	1.3258	+0.45	-0.11
알루미늄	1,977.50	+1.36	+3.64	USD/CHF	0.9112	-0.18	-0.46
전기동	7,068.00	-0.56	+1.96	AUD/USD	0.7306	-0.19	+0.30
아연	2,689.50	+0.37	+1.68	USD/CAD	1.3085	+0.08	+0.40
옥수수	426.75	+0.59	-0.99	USD/BRL	5.3244	-1.95	-1.62
밀	603.00	-0.29	-2.15	USD/CNH	6.5469	-0.42	-0.79
대두	1,169.75	+1.41	+2.07	USD/KRW	1106.60	-0.24	-0.76
커피	119.50	+0.63	+8.64	USD/KRW NDF1M	1105.89	-0.15	-1.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65	-4.09	-9.43	스페인	0.073	-2.50	-11.10
한국	1.622	+0.20	-0.80	포르투갈	0.041	-3.40	-10.50
일본	0.025	+0.40	-2.00	그리스	0.664	-4.80	-17.10
독일	-0.563	-1.80	-7.80	이탈리아	0.637	-1.30	-12.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